

북한의 축산물 수급현황과 대북 축산업 지원방안(Ⅱ)

본고는 북한의 축산에 대한 정확한 실상을 사전에 파악한다는 차원에서 농촌경제 '97여름호에 농촌경제연구원의 신승열, 김운근 연구원이 발표한 “북한의 축산물 수급현황과 대북 축산물 지원방안”에 대한 내용을 발췌·게재한 것이다.

- 편집자주 -

2) 공급의 제약 요인

북한은 1990년 이후 극심한 식량난을 겪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식량의 공급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으며 식량과 경합관계에 있는 사료용 곡물의 생산을 제한하고 있어 축산물 생산이 제약되고 있다.

만성적 식량부족으로 식량자원과 경합되는 사료자원의 확장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러한 사료문제의 해결을 위해 사료작물의 재배를 야산과 비경작지를 이용토록 하고, 비름, 호박, 동과, 돼지감자 등의 사료작물을 대대적으로 재배도 하며, 칩, 찌리 등 자연사료를 채취 사용하고, 벧짚, 옥수수대 등은 주로 사일리지로 이용하고 있다.

사료원료의 공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료공장의 운영이 효율적일 수는 없다. 효율성 여부를 떠나 북한은 도·시·군 단위별로 종합적

배합사료공장과 항생소 사료공장을 건설하였으며 아울러 동·서해안의 어분공장을 건설하여 가축사료를 자체 조달하고 있다. 그리고 닭공장, 돼지공장, 오리공장을 설치한 부근에는 반드시 배합사료공장을 건설하여 사료공급의 안정에 힘쓰고 있다.

북한에서 규모가 가장 큰 사료공장은 자강도의 만포사료공장으로서 연간 생산능력이 1,500만톤이다. 그외 창성사료공장과 벽성사료공장 등이 있으나 구체적 생산능력은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나 현재의 북한 사정을 감안할 때 사료공장은 사료원료의 부족과 에너지자원의 부족으로 가동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이 북한의 축산은 곡물 등을 이용한 배합사료로 축산을 영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에 따라 비곡물류의 자연산 조사료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명백한데

표10. 주요식료품 가격(1996년 5월) (단위: 남한 원)

품명	규격 ¹⁾	단위	남한	북한 ²⁾	
				국 소매가격	암거래 가격
쌀	일반미중품(서울)	kg	1,813	31	38,400
달걀	백색중란(서울)	개	110	88	4,992
돼지고기	정육(서울)	kg	5,400	2,918	69,120
쇠고기	한우정육(서울)	kg	20,000	2,496	-

주 : 1) 규격은 남한기준임.

2) 북한의 1995년말 대미무역환율 1달러당 2.05에 1996년 5월 남한의 대미환율 1달러당 787.90원을 대비하여 북한화 1원=남한화 384원으로 환산한 것임.

자료 : 한국물가협회, 평화문제연구소

사료작물인 비름, 호박 등의 재배면적 확대와 축산용 새땅찾기, 10만ha의 비름밭 조성 등을 시도하고 있으나 그 산출량은 정확히 알 수 없으며 이로 인한 산림의 황폐화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사료공급을 위한 사료재배 면적은 따로 없으며 국가의 곡물생산량 계획하에서 곡물을 사료로 할당하고 있다. 협동농장의 알곡 생산반에서 생산한 옥수수 등의 곡물을 축산반으로 할당하고 있으나, '80년대 이후에는 작업반당 약 5톤밖에는 할당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인부업축산의 경우에도 사료채취의 어려움, 부정기적 사료제공, 비알곡 먹이만 공급하여 가축의 정상적 발육이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의예방 활동의 빈약으로 인하여 어린 가축이 질병으로 죽는 사례가 빈번하여 실효성이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곡물 사료를 적게 들이고 그대신 풀을 이용하는 토끼, 양, 산양 등 초식가축의 사육을 권장하는 한편, 사료소비량이 적고 번식

률이 높은 닭, 오리 사육을 도시근교 및 농가부산물인 풍부한 얻어지는 곳에서 장려하고 있다. 가축의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 것은 충분한 영양소를 구비한 배합사료와 조사료의 적절한 공급인데 자체생산의 한계와 외화부족으로 부족한 사료를 수입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로 인하여 가축 사육두수의 증식과 생산성에서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 표11은 1995년 기준 남북한의 가축생산성을 비교한 것이다. 자료의 정확성이 약하지만, 젓소의 경우 연간 착유량은 남한의 1/2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특히 양질의 사료 급여가 부족하여 생산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소는 남한의 두당 평균지육의 58% 정도의 생산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곡물사료의 급여 부족에 기인한 것이다. 돼지의 경우는 남한 생산성의 약 73%를 보이고 있다. 낮은 가축생산성은 북한의 축산기술이 낙후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원천적으로 주된 요인은 사료의 공급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에서의 축산물 생산성 저하의 원인은 사료자원의 부족에 기인한 바 크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사회주의 경제체제하에서 개인의 이윤동기 결여로 가축사육 기술 개발에 대한 동기와 조건의 결여가 축산발전에 커다란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3) 축산물 수급 전망

앞에서 열거한 바와 같이 북한의 축산물공급은 사료공급의 제약요인으로 열악한 수준에 있다. 북한의 축산물 수급을 단편적으로 극히 제약된 자료에 의존하여 앞으로의 수급 상황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를 전망하기란 쉽지

않다. 특히 북한의 현 경제체제가 최근에 와서 계속 마이너스 성장을 계속하고 있는 시점에서서는 예측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 다만 북한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변화에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해 봄으로써 추상적 예측만 가능할 따름이다.

북한의 농업생산환경은 남한에 비하여 매우 열악한 상태이다. 총면적 12만km² 중 약 80%가 산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제 경작 가능면적은 200만ha를 약간 밑돌고 있다. 통일원 등에서 추정한 자료에 의하면 총경지면적중 농경지면적은 30% 수준인 60만ha로 추정되고 있다.

표11. 남북한 가축생산성 비교. 1995

구 분	북 한	한 국
두당 연간 착유량	2,250kg	6,100kg ¹⁾
소 두당 지육 중량	150kg	257kg ²⁾
돼지 두당 지육 중량	50kg	68.6kg

주 : 1) 한우 평균도체중, 485kg/두, 지육률 53%
 2) 돼지 평균도체중, 98kg/두, 지육률 70%
 자료 : FAO Yearbook Vol. 49, 1995., 축산물 가격 및 수급 자료, 1996

표12. 북한의 GNP 추이

구분	1970	1975	1980	1985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GNP(억\$)	39.8	93.5	135	151	231	229	211	205	212	223
1인당GNP(\$)	286	579	758	765	1,064	1,038	943	904	923	957

주 : 1) 통일원, 「북한개요」, 1990.
 2) 한국은행, 「1993년도 북한GNP 추정결과」, 1994.6.
 3)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 통계청, 1996.11.

나머지는 옥수수 등 식량작물을 제외한 과수원과 쌀밭의 면적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식부면적과 경지이용률은 1960년대를 정점으로 하강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농경연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북한의 곡물 부

족량은 1992년 평년작 기준 약 200만톤이며 농업개혁의 획기적 변화가 없는 한 2000년에도 부족량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북한은 최근 6년간(1990~1995년) 연평균 -4.5%의 실질성장률을 기록하여 1995년 실질 GNP는 1989년의 약 76%에 불과하여 경제상황이 20% 이상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북한의 대외경제 여건의 악화에 따른 에너지공급 애로와 사회간접자본시설의 미비로 산업구조가 취약해진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이와 같이 최근 6년간 마이너스 성장폭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은 북한의 무역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동구권의 몰락과 구소련의 붕괴, 중국의 자본주의 경제체제로의 전환 등으로 대외무역이 크게 위축한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한계성을 여실이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구조 속에서 북한의 인구는 향후 10년간 연평균 약 1.8%의 인구 성장률을 기록한다고

표13. 북한의 인구추이 및 전망 (단위 : 천명)

연 도	총인구	연 도	총인구
1953	8,491	1992	22,336
1960	10,789	1993	22,645
1965	12,252	1994	22,953
1970	14,002	1995	23,261
1975	16,172	1996	23,558
1980	18,170	1997	24,317
1985	19,995	1998	24,721
1990	21,720	1999	25,114
1991	22,028	2000	25,491

자료 : 1) 1996년까지는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 통계청, 1996.11.
 2) 1997년부터는 Nicholas Eberstadt and Judith Banister, North Korea: Population Trends and Prospects, July 11, 1990.

가정하면 2000년에는 25,491천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식자료(FAO)에 의한 육류소비량 추이는 인구증가율에 따라 약 1인당 12.2kg으로 추산될 수 있으나 이에 따른 공급량을 충족시키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귀순자의 면담조사에 의하면 육류소비량은 연간 1인당 1kg 정도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최근 북한 경제에 대한 연구결과는 한결같이 외화부족에 기인한 원유의 공급부족과 이에 따른 전 산업분야의 낙후로 농업관련산업의 침체에 따른 비료, 농약 등 농자재 공급의 원활한 공급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농업생산성을 크게 떨어뜨려 만성적인 식량부족 현상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심각한 식량부족하에서 가축에 급여할 곡물의 양을 증가시킬 수는 없다. 모든 가축의 사육에 있어 초식가축 위주로 사육하라고 하는 김정일의 지시가 있는 것으로 보아, 북한의 축산은 농후사료를 많이 필요로 하는 돼지, 가금의 사양부분이 축소되고 염소, 양 등의 초식가축 위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다만 소의 경우는 유류 부족에 따른 농기계의 가동중단 등으로 역축의 필요성에 따라 일정한 사육두수의 증가를 예측해 볼 수 있는데, 이 경우도 사료자원의 부족 때문에 크게 증가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양질의 축산물 공급은 거의 불가능하며 축산물의 소비도 남한의 1960년대 수준을 면치 못할 것이고, 현상유지나 아니면 오히려 더욱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4. 대북 축산업 지원방안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의 축산업은 1990년 이후 거의 정체 또는 퇴보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보다 식량사정은 최악의 위기 국면에 이르고 있다.

그러므로 식량사정이 해결되지 않는 한 북한 축산업의 발전은 기대할 수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악화된 내부여건 등을 감안할 때, 북한의 식량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식량지원과 근본적인 장단기 농업재건 계획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식량지원의 일환으로 단기적인 축산물 지원과 축산업 재건을 위한 축산기술지원 및 협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장·단기 지원은 통일에 대비한 축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통일 이후의 축산물 수요 증대에 대비하는 방안이 될 것이며, 통일 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1) 단기적 지원방안

북한 주민의 기근 해소와 최소 에너지 충족을 위하여 식량지원과 함께 단기적으로 축산물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우선 지원체계와 지원조건 등은 정치적으로 실현가능한 방법으로 구체화되어야겠지만, 현실적으로 남한에서 현재 조달가능하여 지원할 수 있는 축산물을 고려할 경우 다음과 같다.

1996년 우리나라 소 전체 사육두수가 339.6만 두로 전년대비 7.9% 증가하였고, 또한 수입쇠고기 쿼터로 공급량이 증가한 반면, 위생문제,

경기부진 등으로 소비증가는 상대적으로 둔화되고 있다. 1999년도까지 쇠고기는 공급 과잉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정부는 소값 하락을 방지하고 안정목표가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큰수소를 무제한 수매하고 있다. 수매 즉시 쇠고기를 방출할 경우 수매 효과가 반감되므로 수매한 쇠고기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정부는 500kg 수소가 240만원 이하에서 거래될 경우 수매를 실시하고 있는데 1997년 4월 24.5천두를 수매하였고, 수매량은 계속 늘고 있다. 수매량의 50%를 지원할 경우는 정육으로 약 2,226톤이 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288억원 정도인 것으로 추산된다.

북한 주민의 최소에너지를 충족하기 위한 식량지원 차원에서 볼 때 이러한 쇠고기 단기 지원은 북한 주민 1인당 옥수수 700g을 지원한다고 가정할 때의 에너지의 6.7%에 해당되며, 인구 1인당 155kcal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이다.

또한 남한의 1995년 우유품질 논쟁 이후 우유의 소비 감소와 모조분유의 수입증가에 따라 국산 분유의 재고가 적정재고량 5천톤을 크게 상회하여 '97년 4월말 약 15천톤으로 추정되고 있어 유업체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이를 해소하는 방안이 여러 차례 거론되었고, 현재 민간차원에서 약간의 분유가 지원되고 있다. 현재 탈지분유가격 5,800원/kg, 전지분유 5,120원/kg 정도인데 현물지원시 정부구매가격이 약 3,500~4,000원/kg일 것으로 판단되는 바, 톤당 소요예산은 운송비를 제외하고 약 4백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며, 5,000톤 지원시 총소요액은 2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북한의 유아·어린이가 약 360만명이라고 추산되는 데, 이들이 하루에 필요로 하는 최소 에너지는 1,600kcal이며, 분유를 5,000톤 정도 지원할 경우 약 3.7일분의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다.

이를 주민 1인당 옥수수 700g 지원시의 에너지와 비교하면 약 41%에 해당한다. 에너지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쇠고기 지원보다는 분유의 지원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

분유와 쇠고기의 단기적인 무상지원은 북한 주민에게 식량해결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돼지, 닭 등 육류의 생산기간이 짧고 회전율이 높은 축종에 대한 지원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돼지의 경우 종돈과 모돈을(닭의 경우 초생추) 직접 공급하여 협동농장에서 자연교배함으로써 자돈을 생산, 개인농가에서 부업으로 사육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대가축의 경우 소, 젖소의 정액을 공급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도 있으나, 현재 사료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가축의 직접 지원은 성과가 낮을 것이다. 북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보다 중·장기적인 조사료개발, 기자재 지원과 축산기술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중·장기적 지원 방안

축산기술 지원 및 축산기자재를 공급함으로써 북한내 축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하여 축산물 공급을 늘리고, 생산기반을 확충함으로써 통일 이후의 축산물 수요 증대에 대비하고, 농촌지역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장기 축산기술 및 기자재의 지원은

통일비용 절감차원에서 무상지원을 추진하거나, 북한의 대외개방에 따른 남북한 경제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가칭 남북경제협력기금을 조성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 북한의 축산 실태는 우리나라의 1960년대로 추정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의 장기적인 축산 부흥계획을 위한 대북지원은 우리나라 196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의 축산정책에 따른 성과를 살펴보고, 북한 축산 실정에 맞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지원은 궁극적으로 통일후 한반도 축산업의 생산기반 구조를 재편하여 축산물의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는데 목표를 두어야 할 것이다.

남한의 1950년대는 6·25전쟁으로 위축된 축산을 부흥하기 위한 기간이었는데 가축의 양적 증산을 위한 도축의 제한, 우량종축의 생산보급, 외국원조에 의한 종축수입과 재생산 보급에 중점을 두었으며, 사료대책으로써 가축사료의 절대량을 확보하고 유휴지 개발에 의한 증산활용 방안이 계획되었다. 이러한 결과 한우의 기본 두수 확보와 중소가축의 기반을 마련하는 성과가 있었다.

따라서 대북 지원시 우리 나라의 1950년대와 1960년대에 있었던 증산계획을 북한에 적용하여 생산성 증대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즉, 소 및 젖소의 개량을 위해서 먼저 소의 혈통 등록사업을 착수, 소개체의 생산성 증대 기반을 마련하되 계획적 교배를 고려하여 정액 지원을 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우량 종축의 생산 보급과 지원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영목장과 종축목장을 중심으로 종축개량, 번식장려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도별 1개소씩 송아지 번식목장을 집중 육성하여 송아지의 생산기지화할 수 있도록 기술지도 및 사양프로그램과 소규모의 배합사료 공장 건설을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대가축 뿐만 아니라 중소가축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지원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북한의 축산은 사료공급이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나 농후사료의 경우 남한도 수입의존률이 높으므로 대북지원시 수입에 의존해야 할 수밖에 없다. 장기적인 사료자원의 개발은 현재 논이나 산간지역의 밭·다락밭은 식량 증산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이용되어야하므로, 답리작 장려와 적절한 작부체계를 설정함으로써 사료의 증산을 꾀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유휴지를 중심으로 하여 목초지를 개간 조성하고, 북한지역에 맞는 목초 종자를 개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벼짚의 암모니아처리 등 기존 조사료자원의 적정처리 방법을 이용하여 사료적 가치의 증대도 함께 꾀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생산성 증대를 위해서는 위와 같은 증산을 위한 지원뿐만 아니라 축산기술의 지도, 농장의 경영 지도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료재배 및 이용기술과 인공수정기술, 가축개량기술, 경영관리 및 지도, 가축방역 등이 다양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5. 요약 및 결론

북한은 국가계획수립을 비롯한 모든 정치·

경제적 의사결정과 이에 필요한 모든 정보가 중앙당에 집중되어 있고 하부조직은 중앙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도록 강요되어 있는 사회주의 경제체제이다. 이러한 사회주의 경제체제는 구소련과 동구권의 몰락을 가져왔고 중국도 최근에 와서 자본주의 경제체제로 접근하고 있다.

이는 경제체제 자체의 구조적 모순과 경제규모의 확대에 따른 경제운용의 복잡성으로 인해 중앙집권적인 경제관리가 기술적으로 한계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은 이러한 국제적 환경 변화와 김일성 사망에도 불구하고 더욱 더 김정일 세습체제의 강화 등 국제적인 고립을 자초하고 있으며 자력갱생의 경제 기조를 고수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북한의 경제현실 속에서 축산의 경우도 농업의 일부분으로 그동안 꾸준히 성장하여 왔으나 크게 변화된 것 같지는 않다. 북한 축산의 정책 및 현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축산업은 국영목장, 공동축산, 농민부업축산으로 분리되어 축산물을 생산·공급하고 있으며, 협동농장 및 농가에 일정수의 가축을 의무사육케 하고 있다.

둘째, 중앙농업위원회의 축산국과 가금총국을 구분하여 전문화하였으며 도농축경리위원회,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산하에 종란장, 종축장, 수의방역소 및 배합먹이공장 등의 종합적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셋째, 축산기술 수준은 1970년대까지는 대규모 국영목장에 의한 통합운영체제하에 생산효율을 향상시켰으나 1980년대부터는 만성적 식

량부족으로 사료사정이 악화되고 축산의 생산성이 둔화되어 남한에 비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넷째, 1980년대부터 주곡인 쌀과 옥수수의 부족이 심각하게 대두되어 곡물 등을 이용한 배합사료로 축산을 영위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비알곡 먹이인 자연산 사료(비름, 호박, 동과 등)에 의존할 수 밖에 없으며 부족한 사료를 국외에서 수입하는 것도 외화부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

다섯째, 사료문제의 해결을 위해 사료작물 재배면적을 확장하고 야산과 공한지를 이용하여 호박과 돼지감자 등을 대대적으로 재배하고 있으며, 자연사료 채취 및 볏짚, 옥수수대의사일리지 이용 등 다각적 방법이 동원되고 있으나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여섯째,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북한의 현 축산물 생산수준은 남한의 1960년대초 수준이며 낙농의 경우 다른 분야보다 더욱 낙후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소보다는 돼지를 돼지보다는 가금을 더욱 중시하고 있다.

특히 현재에는 농후사료 보다는 초사료에 의존하는 면양, 산양 등에 대한 사육을 권장하고 있는 추세이다.

일곱째, 만성적인 식량난과 외화부족에 의한 사료수입의 제약 등으로 축산물 생산량의 증가는 둔화되거나 정체될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으로, 남북한 축산업 실태에 대한 근본적인 차이는 북한축산의 생산구조가 집단화, 국유화되어 있어 다른 부분에서와 마찬가지로 제도상의 차이에 기인하여 생산의욕이 상대적으로 낮고, 대외교류의 부족으로 선진화된 사양기술의 도입이 부족한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최근 북한경제에 대한 연구가 한결같이 지적하는 것은 북한의 경제난, 특히 외화부족에 기인한 원유의 공급부족과 농업생산의 저위성에 기인한 식량부족이다.

북한의 축산업은 앞으로 중국과 같은 사유농 인정 및 시장체제 도입 등으로 농업 및 경제전반에 대한 개혁이나 선진기술 및 자본 등의 도입에 의한 타국과의 합작투자를 통하여 북한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돼지공장, 닭공장 등의 기술현대화와 사료생산분야의 과학적 기술적인 방법을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북한이 계속적으로 축산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하고 선진기술 및 자본의 도입을 외면한 채 '자력갱생'만을 계속 강조한다면 축산업 뿐만 아니라 북한의 모든 경제분야에서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축산정책 및 현황을 살펴보았으며, 식량지원의 차원에서 축산물 및 축산기술 지원에 대해 언급하였다. 우선 단기적으로 북한 주민의 기근 해소와 최소 에너지 충족을 위하여 식량지원과 함께 축산물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았고, 중·장기적으로 북한내 축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하여 축산물 공급을 늘리고, 생산기반을 확충함으로써 통일 이후의 축산물 수요 증대에 대비하고, 농촌지역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북한의 축산에 대한 연구는 남북경제 협력이 가시화되는 것에 따른 상호 축산기술의 협력 및 지원방안 등이 보다 구체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 통일에 대비한 남북한 축산구조의 개편계획을 수립하는 차원에서 심도있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양계

우량중추 선택이 농장성공의 열쇠



- 고객의 신뢰속에 우량중추만을 생산해온 무지개농장이
- 초현대식 시설의 무창 자동화 중추계사를 신축,
- 국내 중추업계에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무 지 개 농 장

주 소: 경기도 안성군 삼죽면 미장리 170
TEL : (0334) 72-3322

- * 완전주문생산제실시
- * 완벽한 방역프로그램
- * 철저한 올인 올아웃
- * 완벽한 무창 중추 농장